

여름철 육계 사육의 관리 포인트

당초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올 여름에 100년만의 무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년 기온에 1.4℃ 높아져 10년만의 무더위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도 훨씬 못 미치는 평년 수준(18~25℃)의 여름이 될 것으로 기상청은 발표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특히 육계사육을 하고 있는 농장 입장에서는 전체 계사의 70% 이상이 외부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개방계사의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육계의 특성이 더위에 약한 면이 강하고 점점 이상기온에 의해 순간적으로 기온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생각한다면 오히

려 이런 현상들이 사양관리에 방심을 초래해서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필자는 10년만의 무더위로 인해 생산성이 극히 낮아졌던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던 농장들의 관리방법을 통해 얻었던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보다는 농장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참고로 올 여름의 예상날씨를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올 여름의 예상날씨

월	기온	강수량	태풍
6	높음 / 초여름 더위	평년과 비슷 / 하순 장마시작	7월 이후 2~3개 우리나라 영향 줄 듯
7	낮음 / 동해안 중심의 저온현상	평년(154~345mm)과 비슷 장마전선과 기압골영향	
8	비슷 /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많음 / 대기불안정, 국지성 호우	

* 자료 : 기상청

1. 평당 입추수수 줄이자

요즘은 평당 입추수수의 개념이 계사면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사의 외부시설과 계사내부 시설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단열이 되지 않은 개방계사에서는 30일령 이후에 갑자기 더워질 때 특별한 대책 없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특히 시설점검을 통해서 급수기와 급이기의 숫자, 헨의 갯수, 온도를 강제로 낮출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을 점검하고 입추수수를 결정해야 한다.

연료비나 약품비가 입추수수에 의해 지급되는 현실에서 숫자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손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육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평소 입추했던 숫자보다 10~15% 이상을 줄여서 입추해보자. 작년도의 예로 보면 입추수수에 욕심을 내지 않은 농장들의 경우 사고발생이 현저히 줄었고 성적도 양호했다. 여름철 밀사는 곧바로 출하 2~3일 전에 열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차광막 설치

개방계사에서 여름철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차광막 설치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차광막을 설치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는 계사 앞면이나 옆면에 차광막을 늘어뜨릴 경우 바람의 흐름을 막아서 오히려 계사의 환기를 방해할 수 있으며 더위에 의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사옆면이나 앞면에 차광막을 늘어뜨린 후 나무나 높은 기둥을 세워서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높게 설치해줘야 한다. 작년 여름에 차광막을 잘못 이용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몇 농장 있었다.

두 번째는 차광막의 설치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이려면 계사 지붕과 차광막의 사이가 약간은 떨어지게 씌워야 한다. 지붕과 차광막 사이에 공간이 생겨야 계사지붕이 덜 덥고 오후 2시경에 계사지붕이 받는 더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3. 사료 공급 중단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오전 11시 이전까지는 대부분 닭들이 스스로 견딜 수가 있다. 그러나 오후 들면서 더위를 가장 많이 느끼는 2시부터 5시까지는 제일 피해가 많은 시간대이다.

이 때는 특단의 조치로 사료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매우 효과가 있다. 물론 닭의 체감 온도가 30℃가 넘으면 사료를 거의 안먹게 되지만 오전 12시 전후에 사료가 끊어지게 사료공급 시간을 조절해주도록 한다. 아무래도 사료를 먹게 되면 소화기 시작되고 몸에서 나오는 열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닭의 체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 때 물은 계속 공급해야 한다.

4. 급수관리

물을 이용하여 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다.

가장 좋은 효과는 동별로 지하에서 뽑아져온 물을 통해 받지 말고 직수로 연결해서 시원한 지하수를 먹이는 방법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어려우면 큰 급수기통에 얼음을 넣어주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물론 외부에 큰 물통이 있다면 보온덮개로 싸매던지 차광막을 설치하던지 우레탄을 통 외부에 시공해서 물이 더워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급적 물통은 계사 내부에 두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으나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외부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줘야 한다.

5. 웬을 이용한 방법

여름철에는 계사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단지 계사내부의 공기흐름을 유도해서 시원한 선풍기처럼 닭의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과를 최대로 얻으려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는데 무창계사에서는 대형 웬으로 가능하지만 개방계사에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때는 겨울철에 밖으로 향해 있던 웬을 계사 안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닭이 있는 방향으로 바람을 불

어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추가로 계사 중앙에 세워놓는 웬을 준비해서 릴레이식으로 공기를 순환시켜주면 효과적이다. 닭털이 날릴 정도의 세기여야 하며 100m 계사라면 30인치 이상의 웬이 최소 5~6개는 있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은 닭이 시원하게 느끼는 정도로 써 최소한 열사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특히 계사지붕만 단열이 잘된 농장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6. 지붕에 분무노즐 설치

작년 여름 무더위에 피해를 전혀 안 본 일부 농장은 양계장 지붕마루에 노즐을 사다가 조립해서 아침부터 계속 물을 뿌려줘서 효과를 본 경우가 있었다. 특히 출하 일주일 전부터 이 방법을 이용하니 매우 효과적이었다.

한낮에 더울 때 계사 지붕에 물을 뿌리면 그 화기로 오히려 덥지만 아침부터 계속해서 동별로 지붕에 물을 뿌려주니 계사내부도 시원해서 사료섭취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다. 분무노즐은 재료를 사다가 조립하면 비용이 저렴하다.

7. 고온예방 약품투여

위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 더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때는 비용이 좀 들지만 약품을 투

여하는 방법이 권장된다.

요즘 너무나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비타민 제제들이다.

중요한 것은 약품만 가지고는 절대 피해를 줄일 수 없고 사양관리에 여러 가지 조치를 해 주면서 추가적으로 약품투여를 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사실이다.

- 1) 무더위로 사료섭취량이 현저히 줄면 비타민 과 광물질 제제를 사료나 물에 첨가해 준다.
- 2) 과도한 물의 섭취와 호흡이 증가하면 닭의 전해질 수준이 떨어져 체내의 영양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므로 전해질 제제를 보충해 주면 좋다.

3) 고온 스트레스 예방을 위해 비타민 E를 사료 kg당 500mg 정도 급여한다.

4) 산소소비량이 증가하여 면역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고온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료 1kg당 250mg의 비타민 C를 첨가한다.

5)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혈액점도와 혈장 삼투성의 변화를 예방하기 위해 4%의 포도당 용액을 준다.

6) 갑자기 고온으로 올라갈 때 오전 10시에 급수하면 오후 1시부터 효과가 발생하는 비타민 제제들을 구비했다가 돌발 상황에서 투여한다(가축약품에 상비되어 있음). C



유재석 대표
토금토금

